

백만개의 화제

뼈뼈로 키운 젓소

무선호출기, 일명 뼈뼈가 젓소를 키운다는 재미있는 얘기가 일본에서 실험으로 증명되었다.

소를 풀어놓고 들판에서 사육을 하면 끼니때마다 소를 몰아 사료를 주어야 하는데 이때 드는 시간과 인력의 낭비는 엄청나다.

더군다나 사육하는 사람들이 거의 노년층이어서 그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일본의 축산시험장에서는 우선 사료를 주는 시간마다 음악을 틀어주었고 이 실험이 의외로 성과가 좋아 이번에는 첨단기계인 뼈뼈를 소의 목에 달아서 실험하게 된 것이다.

뼈뼈소리가 난 직후에 먹이를 주는 과정이 되풀이 하고 며칠후 뼈뼈 소리를 내자 뼈뼈를 목에 달고 있는 소들은 거의 모두 사료장 앞으로 모이더라는 것.

뼈뼈로 사육하는 데에 드는 비용이 아직 비싸다는 단점이 있지만 앞으로 가격이 싸지고 소들을 대량으로 사육할 경우 오히려 경제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도둑 잡는 마네킹

백화점이나 슈퍼마켓에서의 골칫거리중 하나는 바로 상품의 분실.

손님을 가장한 도둑이 있지만 직원들이 빼가는 물건도 엄청나다고 하는데 미국의 전체 매출액 2%에 해당하는 2백70억달러에 달하는 금액이 이들에 의해 사라진다고 한다.

이렇듯 액수가 커지자 물건을 파는 일만큼

지키는 일도 중요하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절도 피해를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손님을 가장한 감시원을 배치하는 방법, 감시용 폐쇄 카메라를 설치하는 방법 등이 있었는데 이 방법도 허술하기는 마찬가지.

감시원을 두더라도 창고에서 일어나는 직원들의 절도까지는 막지 못했고, 감시용 카메라를 천정에 설치하면 좋지 않은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신형 포스(POS:판매시점관리) 기기이다.

특수기구가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 상품 꼬리표, 마이크로 칩을 내장한 꼬리표 등도 여기에 포함되지만 판매업주들이 관심을 갖는 것이 바로 감시용 마네킹.

마네킹의 눈을 카메라 렌즈로 활용하고 몸체에 들어있는 비디오 카메라에 현장을 녹화하도록 설계된 이 마네킹은 손님들에게 특별한 거부감이 없다는 것이 장점이다.

이 마네킹으로 절도 피해를 얼마만큼 줄일 수 있는지는 미지수이지만 꾸준히 주문이 들어오고 있다고 한다.

사람의 표정을 조각하는 로봇

자신의 얼굴을 로봇이 똑같이 조각을 해주면 얼마나 신기할까?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로봇응용 및 유공압 연구실의 젊은 연구원들에 의해 이 신기한이 우리 눈 앞에 나타나게 되었다.

카메라가 사람의 얼굴을 촬영한뒤 이를 전자

신호로 바꾸면 로봇이 이 신호에 따라 얼굴을 새기게 되는데 이때 걸리는 시간은 20분.

이렇듯 짧은 시간안에 사람의 표정을 조각해 내는데도 0.5mm밖에 안되는 차이까지 구별해서 나타낸다고 한다.

더우기 조각가로봇으로 불리우는 이 로봇은 순수한 국내 기술만으로 개발됐고 세계 최초라는 점에 더욱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웃는 모습과 찡그린 모습 등 여러가지 표정을 조각해서 비교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산업현장에 쓰이는 로봇도 많지만 이는 미리 입력된 작업경로를 토대로 움직이며 작업과정이 바뀌면 또다시 입력을 시켜야만 하는 결정적인 단점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개발된 조각가로봇으로 인해 작업내용이 바뀌더라도 바로바로 그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는 로봇이 개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안경과 렌즈가 없는 세상

시력이 좋아 안경을 끼지 않은 사람들은 안경의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다.

안경 대신 사용하는 렌즈도 사정은 마찬가지. 그러나 이러한 불편이 사라져서 안경과 렌즈

가 존재하지 않는 사회가 곧 올 것 같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한 기업에 의해 플라스틱 고리가 발명되었는데 바로 이 특수한 고리가 그 주역이다.

이 플라스틱 고리를 눈에 이식하면 눈의 모양을 고쳐서 시력을 교정할 수 있는데 눈의 굴곡을 부풀게 해서 근시를 교정해 주기도 하고 가파른 굴곡을 만들어서 원시를 바로 잡기도 하며 난시는 굴곡을 고르게 만들어 고쳐준다.

이것은 세명의 각기 다른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실험에서 증명된 것으로 세명 모두 눈의 시력을 완전히 회복하게 되었다.

또 이 고리를 이식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30분 정도로 짧고 절개부분도 2mm로 전혀 통증을 느끼지 않는다고 한다.

그뿐만 아니라 이식에 따르는 이질감도 전혀 없었고 상처도 3일만에 완전히 아물었으니 의학계의 획기적 발명품으로 손꼽힌다.

미국에는 90년대 중반에 약 6백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임상실험을 할 계획인데 이런 추세라면 2천년대에는 안경없는 세상, 렌즈없는 사회가 자연스럽게 올 것으로 보인다. <♣>

〈柳泰洙 記〉

産業財産權 大法院判例集大成版 追録

4·6배판(16절), 가제식, 1,065면, ₩25,000

産業財産權 紛爭의 사전예방과 해결을 위한 중요한 情報資料

工業所有權大法院判例集大成版('48~'87) 발간에 따른 추록분으로 지난 '88~'89년분 추록에 이어 '90. 1. 1~'91. 12. 31의 대법원판결문을 모아 추록분으로 발간, 기발간 자료의 체계와 동일하여 지속적인 가제정리가 용이하다.